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인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73-5254 (사무실) 77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 하여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영원한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덧없는 일들에 얽매인 저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기쁨과 말씀 묵상의 은혜에 빠져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속에 잡스러운 생각들을 비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주님의 밝고 맑은 빛으로 채워 주십시오.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선조들의 뜻을 기리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청과의 교우들 먼길 오고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해외에 홀로 나가 있는 교우들과 군대에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 그리고 외지고 그늘진 곳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큰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약4:8	인도자
♠ 교 독 문	24.시편100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임보람 선생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217.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함께
성경봉독	I. 요15:12-17	인도자
	II. 마5:1-12	김인걸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친구냐, 종이냐?	김기석 목 사
	II. 복 된 삶	김재흥 목 사
거둠기도		다같이

헌신의 찬송	516. 맘 가난한 사람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돌아가십시오. 복 되게 사십시오. 이기적인 욕망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돌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하늘 소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미안함을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에베소서 강해(32)
	기도 : 노순옥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조관행 집사 한완식 장로	인도자 최숙화 권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창운	고사일 송양진	허정윤 최영선
	헌금위원	김철수 이인웅	김근종 곽혜자	배상순 문인옥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오해되거나 오남용될 때 이 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다.

‘주님의 뜻’은 찬송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요한 중에 기다림’이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처럼 ‘내 뜻을 완전히 비움’이 가능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들려오는 무엇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은 대부분의 경우 아직도 ‘내 뜻’이 그대로 성성하게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 그러면서도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대학입시에 합격해도 하나님의 뜻,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 사업에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한데 주로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는 일이 훨씬 많다. “잘 되면 내 덕, 잘못 되면 조상 탓”하듯이...

문제는 대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누구와 사이가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 사이가 나빠져도 하나님의 뜻, 사이가 나빠진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그에게 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만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싸울 수밖에 없다며 자기의 증오심과 감투정신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한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등에 업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한걸음 더 나아가, 남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자리에 있는 분이 분명 빛나가는 일을 자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면 그 피해가 한 두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물러나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 나가라는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어쩔 도리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깃발 아래서 서로가 피 터지게 싸우게

된다.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편리에 따라 공격용이나 방어용 무기쯤으로 취급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아주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는 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 자리에 앉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업고 나오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된 ‘신들의 전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새겨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두고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에서 상대적인 나를 절대자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자기 우상숭배’가 얼마나 더 엄청나고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엄청나고 무서운 일을 줄일 수 있을까? 우선 생각나는 것 몇 가지를 열거해 본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우리가 우리 편리에 따라 마음대로 써 먹을 수 있게 객관적으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내 인간적인 생각에 들어와 구체화 되었을 때는 이미 순수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 둘째, 그렇기에 어느 한 가지 일에 대해 내가 가진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이 이해한 대로의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고, 또 정면으로 상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다른 사람도 그 사람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 무조건 하나는 절대적으로 옳은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으로 그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 셋째, 우리가 사는 동안은 모든 것이 ‘거울로 보는 것’과 같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싶으면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자세, ‘내 뜻을 비우는’일에 더욱 정진할 일이다. ... 하나님의 뜻이란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기다리는 일을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무엇이다. 넷째, 이렇게 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남을 공경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지 말고 우선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스스로를 더욱 깊이 살피는 일에 써야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싸우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죽고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깃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오강남, <<예수는 없다>> 중에서)

국 냄비에 대한 명상

지금 불 위에서 끓고 있는 이 국 냄비처럼
평범한 것들에 대해 나는 생각한다
냄비 속에서 끓고 있는 물은 비구름에서 온 것,
그것은 하늘을 상징한다.
불은 태양으로부터 온 것,
냄비 속의 고기는 네 발 가진 동물을 상징한다.
우리의 형제인 동물들
그들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다.
냄비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은 살아있는 숨결,
그것은 원래 물이었다.
이제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 다시 구름이 된다.
이 모든 게 성스럽지 않은가.
맛있는 국이 끓고 있는 냄비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한다. 이 단순한 것들 속에서도
위대한 정령이 얼마나 나를 돌봐주고 있는가를.

(인디언 혈통 시인 - 존 래임 디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최인환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한글 영수기 ◇

십일조헌금:

박규석 박경선 박옥식 박병선 고광송 이춘희 임원민 임수연

월정헌금:

조항범 오현정 정복순 이동천 왕수명 이소순 정진경 허광식

감사헌금:

안길상 이형숙 박옥식 송임희 최미선 배삼순 이정은 무명1,2

생일감사헌금:

박두석 박시내

구도헌금:

장혜숙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심	연합속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설날** :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감사하고 간소한 명절을 보내도록 합시다.
2. **부임** : 오늘부터 이성운 전도사님이 교회학교에서 함께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 **수련회** : 청년회 수련회가 2월 3일에서 4일까지 양평에 있는 은명 영성수련원에서 열립니다.
4. **봉사** : 종묘 급식봉사가 2월 1일(수) 오전 11시 15분에,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3일(금) 오후 12시 30분에 실시됩니다.
5. **연합속회** : 2월 3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베다니 속 식사준비 - 가나안속
6. **신앙실천** : 명절 선물을 조금 간소하게 준비하시고 대신 감사의 마음을 글로 적어 함께 드려 봅시다.

*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 헌화 : 이봉옥 권사 (남편 추모)

< 새교우 소개 >

2608 김금순 - 소속: 2여선교회 (인도자: 노순옥 권사)

2609 배근수 - 소속: 2남선교회 (인도자: 노순옥 권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